



경찰청 야구단에 합격한 KIA 타이거즈의 사이드암 박준표가 '92동기'들의 배웅 속에 12일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최현정(왼쪽부터), 박준표, 박동민, 한승혁, 홍건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야구 보이니 입대… 성숙해서 돌아오겠다”

KIA 투수 박준표 경찰청 야구단 입단

넓은 시야 필요하다는 것 뒤늦게 깨달아

지난 시즌 선발 자신감 얻어 큰 소득

‘호랑이 군단’ 마운드의 한 축인 92 동기들이 12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익숙한 야구장이 아닌 논산 훈련소가 이들의 만남의 장소. 이날은 경찰청 야구단에서 군복무를 하게 된 KIA 타이거즈 사이드암 박준표의 군입대 날이었다.

기운이 뚝 떨어지면서 매서운 겨울 바람이 옷살을 파고 들었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은 따뜻했던 박준표다. 지난 시즌 경쟁자이자 든든한 친구로 팀의 가을잔치를 이끈 ‘우완 기대주’ 한승혁·홍건희, 스프링 캠프 룸메이트였던 사이드암 박동민 그리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 좌완 최현정이 박준표의 동행이 됐다. 불펜 포수로 자신의 공을 받아주던 후배 서준영도 박준표를 배웅하기 위해

기꺼이 논산으로 걸음을 했다.

군입대를 앞둔 기분을 묻는 질문에 “사실 기분이 많이 좋지 않다”고 답해 친구들을 웃긴 박준표는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마음 편하게 야구를 하자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가려보니 더 잘하고 가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뒤늦게 야구가 보였다는 게 박준표의 이야기였다.

박준표는 “잘하려고 했는데 기대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늦게 야구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 내 공만 잘 던지려는 생각이었는데 넓은 시야에서 야구를 풀어가 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덜 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불펜의 마당쇠’로 활약했던 지난해는 특별했던 기억이자 경험으로 남았다. 박준표는 지난 시즌 46경기에서 51.2이닝을 소화하며 불펜의 굳은 역할을 담당했었다.

박준표는 “지난 시즌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들 하시는 데 나는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어서 좋았다. 경기에 나가는 게 행복했다”며 “시즌 마지막 등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첫 선발승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선발로서도 자신 있었고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박준표는 지난해 10월8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역할을 맡아 5이닝 2피안타 4사사구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기록했다. 5-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생애 첫 선발승을 달성하는 것 같았지만 불펜진의 난조로 경기는 5-6 역전패로 끝났고, 박준표의 승리도 날아갔다. 불펜투수의 고된 역할을 잘 알고 있기에 박준표는 “괜찮다. 팀이 이기지 못한 게 더 아쉽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잠시 팀을 떠나 경찰 야구단 투수로 뛰게 된 박준표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각오다.

박준표는 “먼저 군대를 다녀온 (홍)건희가 이것저것 군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말해줬는데 힘들고 안 좋은 것 뿐 이더라(웃음). 체력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군 생활을 하겠다. 건강하게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투구폼도 고민할 생각이다”며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든든했다.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섭섭하지만 알아서 자신의 역할을 잘할 친구들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논산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핸드볼코리아리그 6승 이상 하겠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출사표

“도시공사 핸드볼팀, 많이 응원해주세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이 2월부터 진행되는 ‘2017 SK핸드볼코리아리그’ 개막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했다. <사진>

유석진(45) 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감독은 12일 광주시 체육관에서 열린 ‘출사표’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경기력 뿐 아니라 팀 분위기도 전년도에 비해 달라졌다”면서 시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유 감독은 우선, ‘2017 여자 실업 핸드볼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 청소년 대표 출신 선수들인 박조은(19·골키퍼), 서명지(19·라이트윙), 김은희(19·레프트백) 등 젊은 피를 수혈한데다, SK슈가글라이더스에서 정소영(28·라이트백)과 이수연(26·피봇)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 점을 내세웠다.

광주시체육회가 지난해 말부터 도시

공사 여자핸드볼팀의 운영을 맡게 된 이후 훈련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면서 팀 분위기가 달라진 점도 기대감 상에 한몫을 했다. 유 감독은 선수들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코어훈련과 각종 전술훈련 등을 위해 광주체육회와 공조하고 있다.

도시공사 핸드볼팀은 다음주 한국체대, 환경여고 등에서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연습게임 등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석진 감독은 “3라운드를 치르면서 6번 이상의 승리를 거두겠다”며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SK핸드볼코리아리그는 다음달 3일부터 남여 14개팀(여자부 8팀·남자부 6팀)이 참여한 가운데 2017시즌 일정에 돌입한다. 광주에서는 5월 5일~7일까지 빛고을체육관에서 모두 9경기가 치러진다. 광주도시공사는 다음달 4일 인천시청과의 첫 게임을 시작으로 7월까지 3라운드(라운드당 7게임)를 치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너도 나도 ‘버디 300’ 클럽

KLPGA 2015년 1명…지난해 11명 가입

김민선 359개 1위…출전 기회 많아진 영향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시즌 버디 300개 시대가 활짝 열렸다. KLPGA투어에서 한 시즌에 버디를 300개 넘게 잡아낸 선수는 지난 2015년 박성현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박성현 혼자뿐이었다. 박성현은 2015년 312개의 버디를 뽑아내 289개를 잡아낸 김해림을 제쳤다. 그러나 작년에는 무려 1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버디퀀은 장타자 김민선(사진)이 차지했다. 김민선은 작년에 359개의 버디를 쓸어 담았다. 337개의 정회원과 320개를 뽑아낸 김지현이 뒤를 이었다. 장수연과 이민영이 나란히 307개의 버디를 수확했다. 배선우, 김해림, 고진영, 이승현, 조윤지, 박재운 등 투어 강자들이 시즌 버디 300개를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에 딱 한 명 배출된 버디 300개 선수가 1년 만에 이렇게 많아진 것은 무엇보다 투어 대회가 늘어난 덕이다.

김민선은 2015년에는 27개 대회를 뛰었지만, 작년에는 31개 대회를 치렀다. 2015년에는 81라운드를 소화했으나 지난해에는 95라운드를 뛰었다. 정회원 역시 출전 대회가 많아지면서 2015년 79라운드에서 지난해 97라운드로 늘었다. 2015년에는 90라운드를 넘게 뛴 선수가 한 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1명이 90라운드를 넘겼다.

지난 2015년 KLPGA 투어 사상 처음으로 시즌 버디 300개 고지를 돌파한 박성현이 작년에는 버디 280개로 16위에 그친 것도 출장 경기 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다. 박성현은 2015년 28차례 대회에 출전해 84라운드를 뛰었지만 지난 시즌에는 20차례 출장해서 60

라운드밖에 치르지 않았다. 버디 사양 능력자 체도 향상됐다. 2015년에 버디율 20%를 넘긴 선수

는 박성현 1명뿐이었다. 지난 시즌에는 박성현, 김민선, 이민영 등 3명이 20%를 넘겼다. 버디율 18% 이상 선수가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버디퀀에 오른 김민선은 지난해 버디율 20.99%로 박성현에 이어 2위에 올랐고 라운드당 평균 버디도 3.78개로 2위를 차지했다. 라운드당 버디 개수가 3개를 초과한 기록을 남긴 선수는 지금까지 서희경, 안선수, 박성현에 이어 김민선이 네 번째다.

버디 사양 능력에서는 역시 박성현이拔群이었다. 박성현은 버디율에서 25.93%라는 경이적 기록을 남겼다. 버디율 2위 김민선(20.99%)을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특히 파5홀 버디율은 무려 41.7%에 이르렀다. 라운드당 평균 버디 4.67개는 당분간 깨지기 힘든 불멸의 기록이 될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KLPGA투어에서 라운드당 평균 버디 4개는 아무도 넘보지 못했다. 역대 최고 기록은 지난 2009년 서희경이 세운 3.89개였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라운드당 4개 이상 버디를 뽑아낸 선수는 에리아 쥘타누칸(태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전인지(23), 김세영(24) 등 4명 뿐이다.

/연합뉴스

한·미·일 WBC 준비상황



순조



안도



비상

2월말 쿠바·호주와 평가전

2017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 나서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2월 말 쿠바, 호주와 평가전을 치른다. KBO는 12일 “대표팀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2월 25일과 26일 오후 2시 쿠바와 2연전, 28일 호주와 한 경기 등 총 3차례 평가전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WBC에서 쿠바와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올림픽 폴리그에서 7-4, 결승전에서 3-2로 승리했다. 2015년 프리미어 12 8강전에서도 쿠바를 7-2로 눌렀다. 평가전에서는 4차례 만나 2승 2패를 거뒀다.

호주와는 2013년 WBC 1라운드에서 만나 6-0으로 승리했다.

쿠바와 호주는 이번 WBC에서 일본, 중국과 B조에 속했다.

A조에서 네덜란드, 대만, 이스라엘과 격돌하는 한국은 2라운드에 진출하면 B조 1, 2위와 한 조를 이룬다. 이번 평가전은 A조 예선을 준비하면서 2라운드 상대의 전력을 분석할 기회다.

한국 대표팀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요미우리 자이언츠,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 한국프로야구 한 팀 등 3경기를 치른다.

쿠바, 호주와 평가전이 끝난 뒤에는 경찰 야구단, 삼부를 상대로 실전 감각을 조율한다.

/연합뉴스

에이스 셔저 부상…로크 긴급 수혈

에이스 맥스 셔저(33·워싱턴 내셔널스)를 부상으로 잃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미국 대표팀이 테너 로크(31·워싱턴)의 합류로 한숨을 돌렸다.

MLB닷컴은 12일 로크가 WBC 출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셔저의 빈자리를 부드럽게 메울 선수라고 환영했다.

미국 대표팀은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셔저를 레이스로 점찍었지만, 셔저가 10일 손가락 피로 골절로 대표팀 하차를 선언해 비상이 걸렸다.

미국 대표팀이 로크에게 대표팀 합류를 제안한 건 셔저의 하차 이전이지만,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바통 터치하는 모양새가 됐다.

2013년 빅리그에 데뷔한 로크는 7승 1패 평균자책점 1.51을 기록했고, 2014년 15승 10패 평균자책점 2.85로 기량을 만개했다. 지난해에는 34경기에서 210이닝을 소화, 16승 10패 평균자책점 2.83으로 셔저와 함께 워싱턴 ‘원투펀치’로 활약했다.

앞선 3번의 WBC에서 4위가 최고 성적인 미국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야구 종주국’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각오다.

이미 선발 투수로는 로크를 포함해 크리스 아처(29·텍사스 레이스), 마커스 스트로먼(26·토론토 블루제이스), 대니 데비(29·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출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투수 대거 불참…정상 탈환 빨간불

마에다 겐타(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비롯한 에이스들이 소속팀 반대로 오는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세계 정상 탈환을 노리는 일본 야구대표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 스포츠닛폰은 12일 “마에다가 WBC에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이저리그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다저스 구단에서 일본 대표팀에 마에다의 차출 거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무대에 오른 우완 마에다는 32경기에 선발 등판해 16승 11패, 평균자책점 3.48을 기록하며 다저스의 4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지구 5연패는 물론 29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다저스로서는 선발진의 한 축을 든든하게 받치는 마에다의 활약이 절실한 만큼 시즌 개막 전 부상 위험을 안고 WBC에 출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인다.

다저스는 지난해 마에다와 8년 계약을 하면서도 팔꿈치 상태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보장금액은 낮고, 인센티브가 높은 이례적인 계약을 했다.

파르한 자이디 다저스 단장은 “야수보다 투수의 출전이 걱정된다. 지난 시즌 막판에도 피로감을 드러냈다”면서 일찌감치 다나카의 대표 차출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연합뉴스